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다니엘 3:19-30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단 3:24) 세 사람과 함께 있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려는 데서 오는 뜨거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맹렬히 타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단 3:25b)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믿음을 올곧게 지키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꼭 신앙을 지키는데서 오는 고난만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리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 죄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여인, 실의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실수한 두 제자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했던 욥(욥 19:25)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십니다.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실수를 깨닫게도 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기도 하시며 함께 계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종류의 고난입니까? 어떤 고난이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결박은 단단히 묶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 결박되어 던져졌습니다.(단 3:23) 함께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 주신일은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단 3:25) 우리에게는 온갖 결박이 있습니다. 죽음의 결박, 죄의 결박, 마귀의 결박, 불평의 결박, 흉악의 결박, 미움의 결박, 게으름의 결박, 더러운 습관의 결박, 재정의 결박, 건강의 결박, 사상의 결박, 상처의 결박, 편견의 결박, 영적 결박, 폭력의 결박에 묶인 자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에 결박된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도 있습니다. 결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의 결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그릇된 사고에 결박 되어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라 불러주며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었습니다.(삿 6:11-12)

기독교는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풍요한 자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 희망을 포기합니까? 왜 좌절감에 쓰러져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자들이 다시 한 번 일어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놀라운 반전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풀무불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세 친구에게 오셔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으라고 던져진 풀무 불 가운데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단 3:26-27)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못하였고, 겉옷하나 사르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가 살아나온 반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분노가 가득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구원하셨도다”(단 3:28)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원수도 바뀌는 일이 일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단 3:30)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는 반전의 자리입니다.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잘 설명해 줍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단 3:28b) 믿음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사리지 않고, 몸으로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것에는 아니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Anthropos)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십자가가 빛난 면류관이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세 사람 그대로였으면 참담한 공동체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도가 되지 맙시다. 모든 민족,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우리가 받는 고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2. 당신의 삶에 있는 결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결박을 풀 수 있습니까?
3.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